

연중 제21주일

제 1 독서 : 이사 66, 18-21

제 2 독서 : 히브12, 5-7.11-13

복 음 : 루가 13, 22-30

# 순정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루가 13, 24).

## 강론

### “실종된 마음을 찾아서”

이덕근 신부 / 상삼례 천주교회

동양의 성현이라 일컫는 맹자는 “슬프도다! 사람이 닭이나 개를 잃으면 찾을 줄 알면서 마음을 잃으면 찾을 줄 모르는구나”라고 말했다.

오늘날 현시대 특징 중 하나를 들라면 분주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온통 세상이 바빠 돌아간다. 사람 또한 그 속에서 바쁘게 뛰고 있다.

외국은 제쳐두고 국내 상황만 보아도 매일 중계했던 올림픽 소식, 인공위성의 발사, 남북한 당국자들의 협상, 각 공사장의 붕괴 사고 등등.

그러나 일을 바쁘게 채근하면 상대방이 꼭 빠뜨리는 것이 있듯이, 우리를 바쁘게 하는 이유가 결코 우리 정신을 빼서 다른 영똥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길 위정자들에게 기대해본다.

교회도 여름철만 되면 분주하다. 초·중·고 신양산간 학교, 성인들의 단합 야유회, 입에서 쏟아져 날 정도로 울여름 모두 바쁘다. 나 역시 전반적 교회의 추세가 분주하니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기왕지사 할라치면 새로운 프로젝트라도 제시하고 싶었으나 능력이 없고, ‘그래도’를 연신하다 시일에 쫓겨서 대세에 몸을 맡겼다.

아름든 여름철 행사를 마쳤으니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만 웬지 뒷맛이 씁쓸하다.

사람의 마음은 단순함과 복잡함이 혼합된 것 같다. 그래서 관심을 쏟아야 할 곳에 쏟지 않으면 그 관심은 엉뚱한 곳으로 흐르며, 그곳에 쉽게 몰두하고 나머지는 쉽게 무관심 속에 묻힌다. 아무리 질책하고 설득해도 이유를 대면서 빠져나오질 못한다. 자꾸만 무관심이란 거대한 공룡이 그 이면을 외면케 한다.

자! 싸우자. 싸우러 나아가야 한다. 분주했기에 몰두했고 무관심했던 다른 세계 그 세계가 가치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도가 도무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관심도 인간관계의 큰 힘이 되지만 무관심의 힘도 관심의 세력에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눈을 부릅뜨며 싸워서 안된다. 애당초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사랑과 관심이 빠진 마음들이므로 오늘도 그분이 마음을 잃은 우리를 향해 연호하고 있는 듯하다. “애들아,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이다.

## 소리

### “거품이 문제”

한때 1,000대를 넘어섰던 종합주가지수가 470대로 무너졌다. 나라의 경제기반이 흔들리는 조짐이라 하니 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해서 무관하지만은 않은 사태인가 보다.

신행주대교가 무너진 것을 사회가 크게 잘못되어가는 지표로 보는 이가 많았다. 꼭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아직 가려지지 않았으나 어떤 정치인은 관계자들이 공사비를 많이 빼먹어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했다.

바야흐로 총체적 불신의 시대라고 한다.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것이 많아 무엇하나 든든하게 여기고 의지할 데가 없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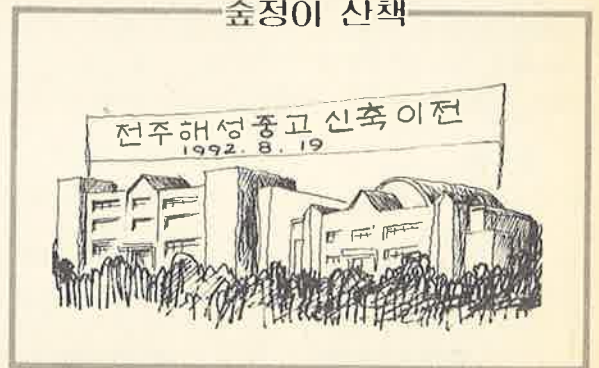
지금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적되는 경제쪽의 전문가들 가운데는 요즘의 사태가 거품이 사라지면서 빚어지는 것이므로 거품처럼 부풀어 있는 부분이 사그러지면 언젠가 탄탄한 바닥이 드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땅을 모두 판다면 그 돈으로 미국 1억 80% 인가를 살 수 있을 만큼 부동산값에도 거품이 태반이고 그래서 땅장사로 돈을 번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는 바람에 경제가 비틀거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거품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는 느낌이다.

하찮은 잡초도 햇빛과 공기와 물로 잎을 기르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었다. 우리도 마음속에 거품과 허식을 훌훌 털어내고 남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

### 순정이 산책



## “거인족의 출현” (창세 6, 1-4)

거인족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고대 근동지방의 신화에 뿌리를 두는데 대체로 신과 인간의 결합이 초능력적인 힘과 지혜를 가진 영웅이나 거인들을 탄생시킨다는 내용이다. 성서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종류의 신화가 어떻게 모세오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 신화적 본의 미와 이야기 형성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고찰해보겠다.

첫째, 창세기 저자는 당시 팔레스티나 지방에 유행하던 우가릿 신화와 접촉했을 것이다. 거기엔 샘족의 신 ‘엘’이 두 여자를 유혹하여 두 명의 신통력을 가진 남자를 탄생시켰다고 되어 있다.

둘째, 저자는 이 신화를 이용하여 기원 전 2천년경 가나안에 나타났던 ‘땅속으로 내려간 사람들’이라는 뜻의 느빌립 거인족의 정체를 밝히고자 했을 것이다. 고대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보면 고대인들 가운데 거인들이 있었다는 기록과 영웅시대에 불사불멸하는 신들이 그렇지 못한 인간들과 결혼했다는 기록이 흔하게 나온다. 창세기 저자에게도 이런 신화적 요소들이 알려졌을 것이고, 선조 시대에 살았다고 전해오는 거인족들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동기를 부여해주었을 것이다.

셋째, 저자는 우가릿 신화를 바탕으로 거인족들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윤리적인 가르침을 첨부한다. 우선 저자는 풍산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우상숭배를 멀리하도록 촉구한다. 풍산신들의 신전에는 창녀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과 성행위를 하면 그들의 신적 능력을 부여받아 그 해의 곡식의 소출과 가축의 출산이 풍요롭게 된다는 믿음이 유행하여 제사를 바치는 사제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신전의 창녀들과 어울렸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 율법과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의 신전 창녀들과 놀아났다. 특히 이 기록의 저자가 살던 솔로몬왕 시대에는 정략적인 목적에서 끌어들인 이방 출신의 부인들 때문에 궁중에까지 침투되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이런 풍조를 배격할 목적으로 우가릿 신화에 윤리성을 부여한다. 즉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고, 사람들의 딸들은 ‘풍산신’ 신전의 창녀들을 비유한



다. 이 두 부류가 부정하게 어울리는 걸 엄격하게 규제했다. 그래서 동물과의 교접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큰 죄악으로 여겼고, 이방인들과의 교제도 엄격히 규정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처벌은 120세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었다. 우리가 볼 때 120세이면 장수하는 것이지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홍수 이전의 족장들은 대부분 900세를 웃도는 나이이다. 터무니없이 많은 나이들은 이를 작성한 사제들의 신화적인 의도로 그들은 인류의 역사를 아득한 옛날로 돌리기 위해 역사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을 일부러 길게 잡아놓았다.

창세기 저자는 왜 우가릿 신화에서 따온 이야기를 카인의 이야기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 사이에 끼워 넣었을까? 그것은 인류의 범죄가 한 남녀의 차원에서 이웃, 특정 집단의 차원, 온 인류의 차원으로 점점 확산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인간의 범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만 죄악의 세력은 인류 전체에게 죽음을 불러들이기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공예가구

**아 씨 방**

(이리 대리점)  
류경선(오 한)  
전춘자(수산나)  
이리시 신동 806-7  
☎ 858-0196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교육청 신고 2564호

**우리 한문 교실**

어린이 한자, 사자소화,  
천자문, 명심보감 등  
효자동 서원국교 후문 사거리  
문혜영(파비올라)  
☎ 224-5907

개업안내

웅진한성물산주식회사 **까네트**

훈수품(침구류) 전문업체 전주지사  
지부장 탁경희(울리안나)  
☎ 231-4662(3)  
\* 함께 일하실 분 연락바람.

5분교리 16

“가톨릭 교회”

교회란 용어는 어원상으로 그리스어 Ecclesia에서 나왔는데 시민의 집회를 뜻하는 말이었다. 이 말이 종교의 집회에 사용되어 신자들이 구성된 단체라는 교회의 의미가 되었다. 교회의 넓은 뜻으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상교회와 더불어 천상교회, 연옥의 단련교회를 포함한 하느님의 커다란 가족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예수 친히 세우셨으며 당신 생전에 이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당신의 구원사업을 이어받도록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당신의 구원사업을 제자들과 그 후계인 교회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고 성령을 통해 영적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눈에 보이는 하느님의 활동이다. 주일미사 때 우리는 고백한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변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으며...” 한 분이신 하느님의 종교이니 가톨릭 교회는 어딜가나 ‘하나’의 일치된 교리와 전례가 있을 뿐이다. 개신교처럼 지역과 목사에 따라 분분한 이철이 없다. ‘거룩하신’ 하느님을 따라 거룩한 것을 가르치며 그 열매로 무수한 성인 성녀와 순교자들이 있다. 현세에서도 이미 거룩함을 갈망하는 사제들과 남녀 수도자들의 무리가 그것을 말한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 15).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를 위한 보편적(공변된) 교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 21). 사도들은 요즘같이 선거운동을 하여 뽑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중책을 맡겨주신 것처럼 그 후계들도 같은 방법으로 계승되고 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똑같은 것을 가르친다는 점에서도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한다. 이 내 가지 조건이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요소이다. \* 참고 자료 : 교회론 1, 2(책)

교 구 소 식

※ 성서교실 개강 : 수요일-8월26일(수) 오전10시,  
 금요일-8월28일(금) 오전10시, 오후8시, 곳-전동 성당.

1. 중등교육자회 하계 연수회 : 8월30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강사-박도식 신부(효대 총장), 회비-5,000원.
2. 초·중·고 교리교사 피정 : 9월5일-6일 나바위 대건교육관.
3. 혼인강좌 : 8월30일 오전9시30분-오후5시 가톨릭센터, 회비-10,000원, 문의-행복한 가정운동(85-5098).
4. M.E. 41차 주말 : 8월28일-30일 천호 피정의 집.
5. 교도소 개학미사 : 8월26일(수) 오후2시 후원 회원과 함께.
6.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8월28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장 수녀님.
7. 정천봉 신부 새주소 : 서울 강남구 세곡동 341-1 군중사제관 (02)445-1623.

※ **축! 영명** : 24일(성바르톨로메오) 문정현 신부님,  
 28일(성아우구스티노) 김영일, 한정현, 이동 신부님.

● **성소모임** 성바로떨수도회(피정) : 9월 6일 원평 성당, 대상-성소에 관심있는 젊은이, 회비-3,000원, 마감-8월31일, 접수-성바로 서원(0652)252-3398.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교구 행가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관하고 교육, 지도하는 행가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낙태, 이혼 등 반인륜적 행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안경 콘택트렌즈 · 금은시계  
**전주 오거리 천보당**  
 손한성(바오로)  
 정정님(가타리나)  
 고사동 오거리 ☎ 84-4138,  
 253-0707

금은, 보석, 시계, 목주  
**금보장 금방**  
 장금태(프란치스코)  
 채현욱(마리아)  
 전주 남문 옆  
 ☎ (점) 88-4989  
 (자) 88-4988

**대화 아채 효소 전복지사**  
 체질 개선  
 김영희(실비아)  
 관동로 전주백화점 옆  
 ☎ 231-4280~1  
 야간 224-8566

**여름방학 대강좌**  
 전문대반 모집  
 9월 신설반(처음부터)  
**대입 필수한샘학원**  
 전주 74-7424 코어 후문 시청 서리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 여성  
 일시 : 8월30일 오후2시~5시  
 장소 : 삼랑진 본원  
 ☎ (0527)52-4241

원평 성당에서 직접 재배한  
**꿀 배**  
 ①판매기간 : 8월20일-10월20일  
 ②규격 : 8kg 당 1박스  
 ③가격 : 특 20,000원, 대 17,000원  
 중 14,000원, 소 8,000원  
 ④주문처 : (0658)43-0880 사제관  
 원평 성당 최용준 신부

양재 · 한복 · 홈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앞 · 민정당시앞  
 ☎ 86-2715  
 \* 냉난방 완비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령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연중제21주일**

1. 장우회임원 명단: 회장-김동훈(프란치스코), 부회장-박준근(스태파노), 이대환(베드로), 총무-박종용(레미지오), 서기-임채규(암브로시오), 회계-김용환(요한).
  2. 추석명절합동 위령미사 예물접수: 사무실에 접수.
  3. 중·고생 교리경시대회: 오늘 후6시.
  4. 모임: ①빈채시오(27일 전9시30) ②제대회(27일 전10시30)
  5. 매주 미사시작전 15분동안 성가연습이 있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6. 금주청소: 남노 3,4반, 차주청소-남노 5,6반.
- 지난주 봉헌금: 713,260원  성모승천: 546,500원  
 교무금: 821,000원  2차헌금: 205,53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성지순례: 9월27일, 장소-메티성지, 회비-8,000원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2. 예비자 교리: 신부님반(27일시작)-목요일 저녁미사 후, 수녀님반-주일 오전9시.
  3. 교무금 미납되신 분은 완납바랍니다.
  4. 병자봉성체: 28일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5. 유아세례: 29일 오후7시,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6. 제대회: 27일 오전10시30분.
- 금주전례: 정승훈, 독서-안철조씨 부부, 봉헌-김용식씨 가족,  
차주전례: 최육남, 독서-나경섭씨 부부, 봉헌-하병규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900,550원  교무금: 1,000,4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옥

※ 수녀원 신축헌금: 금주봉헌-280만원, 누계-1,169만원, 기도문 잊지않고 바치고 계시는지요?

1. 울트레아: 28일(금)저녁미사 후, 2. 성서교실: 매주(목) 저녁미사 후, 3. 꾸리아: 공식미사 후, 4.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유아세례: 29일(토)오후4시, 6. 성가대 윌레히: 28일(금) 저녁미사 후, 7. 성서읽기: II 열왕1장~13장 8. 금주청소: 바다의 별Pr. 9. 금주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남현준, ②오귀남, 봉헌-남창덕, 강준용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미숙, 독서-①양주대, ②송정자, 봉헌-안정만, 박순귀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82,060원  교무금: 82,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응

※ 오늘은 연중 제21주일! 낙태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1. 열림: ①첫 영성체 교리-9월1일부터 시작(첫 영성체 대상자는 이율리바수녀님께 신청바람) ②혼인강좌-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혼인 전에 혼인강좌를 이수하고 혼인 신청서 이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매월 마지막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에서) ③전·출입자는 교적정리를 위해 필히 본인이 사무실에 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④성당내 모든 불건을 깨끗이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잘 정돈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⑤유아세례-9월영성체 같이 할 예정이오니 대상자는 사무실에 신청용지 있으니 신청바람.
- 지난주 봉헌금: 683,250원(성모승천미사헌금 532,700원)  
 교무금: 588,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현

1. 첫 영성체 및 어린이 세례받을 어머니를 만남: 8.25(화) 시간: 11시.
  2. 금요일: 어머니미사(8.28)=나눔을 위한 봉헌 있습니다.
  3. 다음주 공식미사 후: 요셉회, 사라회 있습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4. 청소년사: 2구역 3반, 4반, 5반.
- 지난주 봉헌금: 538,600원  교무금: 925,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명 태

1. 레지오 야외행사: 오늘, 장소: 지리산.
  2. 본당미사: 새벽5시30분, 10시30분, 오후3시, 저녁7시.
  3. 감사환니다: 성당외의 페인트 대금(50만원), 임길례(아가다)자매님.
  4. 주일헌배: 본당신자에 한해서 10월부터 주일오후1시에 1대있음.
  5. 본당자원 봉사단(베에다회)조직 발족: 노약자, 환자등을 위해 순수봉사, 뜻이 있으신분 수녀님께 연락바람.
  6. 축! 꾸리실료수료자: 강태순(소피아), 강옥희(루간다)
  7. 차주: 성마리아 꼬미시오(오후2시)
  8. 전국울트레아: 9월27일(참가회망자 사무실에 접수바람)
- 지난주 봉헌금: 1,566,49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 A 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원 규

1. 축! 독서직 수직식: 31일 박동진(벨라도)화사님, 출발전9시.
  2. 배소라 성서 강의: 9월19일부터, 입학원서 접수, 2,000원.
  3. 제41차 M.E부부 주말 강습회: 28일 이장희부부, 박홍수부부.
  4.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30일~9월10일, 사무실에.
  5. 정결하신 어머니Pr 단합대회: 27일 전10시 덕진공원에서.
  6. 교도소 개혁미사: 26일(수) 오후2시, 후원회원과 함께.
  7. 자선의원: 26일 어머니미사, 아버지미사, 정성원 봉헌을...
  8. 회의: 성가대 윌레히-26일 어머니미사 후.
  9. 축! 영명: 27일 박모니카 수녀님 축하드립니다.
  10. 가정미사: 25일 전11시 광진 5동1302호 소제인(요셉)가정.
  11. 성모승천 대축일 봉헌금: 716,270원
- 지난주 봉헌금: 938,280원  교무금: 914,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청년회: 오늘 미사 후.
2. 반모임: 26일(수), 오후-동신APT.

금주전례: 최정순, 독서·봉헌-김미자, 이충석.  
차주전례: 정 갈, 독서·봉헌-최복희, 최영식.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F A X 223-3821 사목회장이 동 실

※ 연중 제21주일 -모임안내-

1. 사회복지분과: 오늘 오전9:30분.
  2. 전례해설단: 26일(수) 저녁미사 후.
  3. 꾸리아: 26일(수) 오전10시.  
※ 감사-20일 증고생 "효자의밤"행사에 출연한 학생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자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 기도-지난 22일 영명축일을 맞이한 레지나 첼리수녀님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사안내: 금주-지혜로우신 모후, 찬송하울모후, 차주-상지옥좌, 성조들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1,234,810원  교무금: 1,226,000원

**\* 효지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1. 성지순례: 9월27(일) 장소-해미, ※ 전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바랍니다.
  2. 성전건축위원 단합대회: 오늘 12시.
  3. 축! 꾸리실료수료자 탄생: 손선희(클라라), 이경금(리나)
  4. 예비자교리: 26(수)저녁미사 후 개학5. 반기도회 준비모임: 28(금)10시미사 후, 6. 박모니카수녀님 세미나참석: 22(토)~29(토)  
차주모임-사목회, 요셉회, 반석회, 신축헌금봉헌액-100,000  
금주전례: 해설-김광남, 독서-①임정준, ②이인숙, 봉헌안내-오우진 부부, 안순수 부부, 차주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임희준, ②김연수, 봉헌안내-김춘태 부부, 송하영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072,690원  2차헌금: 351,510원  
 교무금: 1,069,000원  성모승천대축일 헌금: 803,090원